

2015. 04 “사헬에 흐르는 기쁨!”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11)

세네갈 띠에스에 건축되어진 교회의 이름을 고심 끝에 “샘” 이라고 지었습니다.

샘 교회: 에글리즈 수르스(Eglise source):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띠에스 전체에 모래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온 세상이 부영게 말라있습니다. 작년에 우기가 너무 짧아서 그나마 있던 물기가 빨리 없어져 버렸는지 부영고 메마르고 먼지 몰아치는 기간이 유난히 길다고 생각됩니다. 동네에는 물이 없어서 이리 저리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계속 보였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물이 없어 축축 처지고 헉헉거리는 이 땅에 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길고 또 길러도 다시 고이고 솟아나는 샘이 이 땅 곳곳에 있어야겠습니다.

샘 교회에는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성경학교에 은쥬벤 마을에서 수산나로 부터 멜로디언을 배운 여자 아이들 39명중 매주 약 30여명 정도의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형식으로 듣고, 그 이야기로 미술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입니다.

마을에서는 방치된 아이들처럼 신발은 어디 갔는지, 옷은 낡아서 너덜너덜하게 입고 있던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는 가장 예쁜 옷으로 입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오고 있습니다. 무슬림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가가려고 무척 애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드는 마라부(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딸도 오고, 주중에는 모스크에 가서 코란을 배우는 아이들이 주말엔 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가득한 역사하심만이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을 믿습니다. **절실한, 간곡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샘 교회 바로 뒤에 또 길 건너편에 사는 풀라 종족 아이들도 성경학교 할 때마다 교회를 기웃기웃 거리더니 지금은 한 그룹이 되어 섞여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샘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월로프어와 불어로 진행되는 예배이기에 언어적으로는 심플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던 잘로는 그 첫 날 새벽 한 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서 갈 수가 없다고..너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답장을 보내자..정말로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온 친척이 동네가 나라 전체가 커다란 모슬렘 바위인데 그 안에서 공개적으로 떨어져 나와 예수님께로 향하는 일이 기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온다고 했던 압달라 조차도 오지 않은 첫 주일 예배에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두드리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조벤 마을과 꺼루 압두 마을에서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중에 있는 잘로, 압달라 그리고 죠셉은 변함없이 마을 사역에 함께 동행 하고 수산나의 멜로디언 그룹도 5번째 그룹 7명의 아이들이 채워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매주 성경학교에 오고 있고 지금은 6번째 그룹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들과 CTC에서는 밭을 갈고 성경 학교와 예배로 씨를 뿌리고 물주면서 주님이 싹 틔워주시고 다발로 열매 맺히게 하실 그 순간을 참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치지만 힘을 내겠습니다. 기도의 무릎도 인내하며 계속 꿋꿋이 주십시오.

지난 연말에는 성경학교 아이들을 초청해서 **성탄행사(20일)**를 했는데 39명이 다 와서 함께 주님의 나심을 축하했습니다. 은조벤 마을과 꺼루 압두마을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영화 상영(23일)**을 했고, 25일 주님 나신 그 아침에는 CTC와 지인들을 초대해서 **성탄절 초청 전도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2월 28일, **CTC 생일**에는 성경학교 아이들 은조벤, 꺼루압두의 태권도 아이들 그리고 띠에스CTC 제자들과 지인들 약 100 여명이 모여 C.T.C를 외치며 샘 교회 앞길을 행진하고 교회 교육관에 모여 모두가 멤버로 하나 됨을 누리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성경학교 아이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간 배운 찬양을 외쳐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에 승희형제(코이카 단원)는 어느덧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이름이 물들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보람됨을 고백했습니다.

4월 5일 **부활절**에 모여든 70여명의 CTC 멤버들과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이미 몇몇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찬양했는데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찬란한 부활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비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으고 또 모아 전하고 또 전해 그들의 마음이 급기야는 예수의 이름으로 송두리째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끈질기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림이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주어진 1년의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바라봅니다. 자신의 꿈을 단단히 다지며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이 땅을 섬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성이와 시운이는 8월에 BCS 로부터 학교를 옮겨 DA 로 다시 가게 됩니다. 헤어짐이 잦은 아이들이 상처가 되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도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감당키 힘든 필요한 재정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알고 안심하고 맡겨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5년 6월에 안식월(4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건축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꿈을 발견하며 우리의 마음도 매우 벅찬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또 샘 교회를 통해 앞으로 되어 질 일도 모두다 주님이 앞서 행하셨고 주님이 계획하
 고 계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가 너무 많습니다. 나누고 싶은 앞으로의 꿈이 또한 벅칩니다. 만나서 그 벅참을 나누고 여
 전한 동역으로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대충 밥 먹고 이것저것 챙겨서 서둘러 샘 교회로 향합
 니다. 2 층으로 지어진 교회가 붉은 담벼락과 베이지의 건물 벽에 아침 햇살이 비치면 눈에
 띄게 반짝거리 너무 환상적(?)이라고 잘로는 이야기 합니다. 2층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
 보면 그 아이들이 먼저 “수잔~, 무슈 초이~” 부르며 담 모퉁이를 돌 때까지 손을 흔들며 지나
 갑니다. 샘 교회에 머무르면서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주말의 성경학교와 예배를 준비하고, 사
 역 마을들을 다녀오고, 동네의 풀라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좋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무한감사하며 기도해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되는데로 오셔서 보시고 기도하며 이 땅과 사역 지를 밟아 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도 품
어 봅니다.

**주님 부활하신 찬란한 봄에 각 가정과 교회와 하시는 일에 빛 되신 주님의 빛이 가득히 비
 치는 날 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하람 수산나 하림 산성 시온 선교사 드림.

1. 꺼루 압두 은자이와 은쥬벤에 복음의 문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토요 성경학교 진행에 협력하는 관계가 계속되도록,
2. 토요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복음에 계속적으로 반응하도록,
3. 현재 코이카 단원 2명이 성경학교를 도우는데 지속적으로 도울자를 붙여 주시도록,
4. CTC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더욱 활성화 되도록,
5. 주일 현지 예배가 월로프와 불어로 진행되는데 잘 준비되어지고,
 CTC 멤버들이 공개적으로 함께 예배 드릴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6.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그 안에서의 사역에 지출되어질 재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필요가 채워지도록,
 재정으로 인해 사역이 제한되거나 마음적으로 놀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재정상황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 하림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산성시온이의 학비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채워짐을 경험하도록,
8. 안식월을 위한 항공료와 안식관 그리고 산성시온이가 먼저 세네갈에 들어오는데 안전하도록,
9. 양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안식월동안 구원의 기쁨이 임하도록),
10. 가족모두 특히 최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기.도.부.탁.드.립.니.다.**